

## 제8강 자살, 재앙을 부른다 2

### 죽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 A 영혼은 중명의 문제인가

과학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인류생활의 전체를 모두 규정할 수는 없다. 과학은 실험과 증명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확인되는 진리만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과학의 최대 강점인 동시에 또한 한계이기도 하다. 과학은 문학과 예술, 종교와 같이 추상적이고 확인되지 않으며 논리적 비약이 인정되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부정한다.

“인간의 생명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는 죽은 것이다. 인간은 실제 이 두 가지 영역을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생명을 받고 살아나오는 것이요, 오래 살다 육체의 물리학적 생물학적 기능이 쇠퇴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죽게 되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는 여기서 바로 죽음의 세계에 속해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 살아있는 순간에도 영혼은 인간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 영혼은 죽음에 이르면 육체와 분리되어 현상계, 곧 물리적인 3차원의 세계와 다른 존재 법칙에 의해 지배되게 된다.”

삶과 죽음은 실제 생명과 자연계의 두 가지 속성이다. 이것은 실제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삶으로 시작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손바닥의 위아래와 같이 삼라만상 현상계를 형성하는 두 가지 측면이다. 과학은 눈에 드러나는 현상계의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현상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찾아나가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를 절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 또는 특수한 영혼의 작용을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은 후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 어떤 영혼의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는 죽음의 세계에 직접 들어가 보아야만 알 수 있다.<sup>1)</sup>

#### 영혼의 존재, 죽음의 순간 누구나 알게 된다

1) 차길진 <영혼을 팔아먹는 남자 이야기> (후암, 1999년) 296쪽

“영혼의 존재증명은 무의미하다. 인간 자체가 영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의 집합체이다. 영혼의 존재는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구태여 얘기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2)

인간 자체가 바로 영적인 존재이므로, 자기가 자기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가 자신에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혼의 존재 증명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분명한 사람이 애써 설명한다 해도, 자기가 자신에게 애매모호한 사람이 알아듣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 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죽음의 순간 누구나 알게 된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알게 되면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삶을 이미 다 살았으니까. 보다 깊이있게 삶을 영위할 기회는 이미 지나가버렸기 때문이다. 그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고 말하지 말고, 알아듣게 설명해 달라고 강변하기보다, 자신이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죽음문제는 제3자의 설명에 의해 이해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 의식영역 확장해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 뉴델리 태생의 하버드대 의학박사 출신으로 인도 전통 치유과학인 आयुर्वेद(아유르 베다)와 현대 의학을 접목하여 정신신체의학이란 독특한 분야를 개척한 디팍 초프라는 육체적 생명을 끝내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식으로 죽음을 정의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의식의 영역을 보다 확장시켜야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그 완성이라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의식경계를 확장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3)

### 영혼, 증명의 문제 아니다

2) 차길진 <영혼을 팔아먹는 남자이야기> 233쪽

3) 디팍 초프라, 정경란 <죽음 이후의 삶> (서울 : 행복우물, 2006년) 17쪽

또 생사학과 호스피스의 현대적 고전 『티베트의 지혜』의 저자 소갈 린포체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죽은 이후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증명이나 논증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이 삶에서 자기 자신과 인간 존재를 얼마나 깊이있게 이해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sup>4)</sup>

그러니까 문제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죽음에 물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현명하다. 또 죽으면 다 끝나는가 하는 질문은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므로, 죽음이해는 곧 자기 존재 이해로 통한다. “나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곧 “나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 B 기독교의 경우

기독교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종말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인 채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것처럼, 사후에 천국에서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다 함께 신의 무한한 사랑에 감싸인 채 삶을 계속 이어가리라는 희망이 기독교 신앙의 근저에 있다. 인도의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니르말 흐리다이’(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를 짓기도 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누구보다 많이 보신 분이다.

“죽음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다. 죽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삶의 계속이고 완성이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일 뿐이지 영혼은 계속 유지된다.”<sup>5)</sup>

얼마 전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내가 죽어도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안에 소멸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교황에 따르면 죽음이란 어둡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최후로 찾아오는 명백함, 눈부신 빛이다.<sup>6)</sup>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희망의 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신세

4) Gary Doore ed. What survives? New York : Tarcher Putnam Book, 1990 ; 203

5) 신흥범 <마더 테레사> (서울 : 두레, 1997년) 96쪽

6) <마지막 선물>141

계로의 초대이며, 하느님의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신학자 존 크리소스톰도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옷을 벗는 것이다. 육체는 영혼의 옷이다. 죽음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것을 벗어놓은 후 우리는 보다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7)

또한 정진석 추기경도 “육신은 물질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부활한 영혼의 육신은 비물질이다. 현세의 육신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8)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박정우 신부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시작의 의미는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다. 생명의 주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 카톨릭의 뜻이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생명을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어기면 그 뜻에 거역하는 하는 것이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생명이 끝나면 고통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생명을 끝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생명을 주신 주인의 뜻을 있을 것이고 그 고통마저도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명에 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생명력으로 고통을 이겨나갈 때 그 생명력이 더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고통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리 중에서도 중요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가족과 이웃이 서로 보듬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196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생명의 존중함이 경시 되었다고 본다. 살아있는 생명을 경제에 방해에 된다는 차원에서 제거 한 것은 우리사회 생명경시사상에 원인이 되었다. 또한 무조건 경쟁에 이기기를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관이 떨어지게 되고 더불어 생명에 대한 가치도 함부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버틸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정신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9)

7) 설은주 <아름다운 삶, 성스러운 죽음> (서울 : 쿰란출판사, 2005년) 13쪽

8) 중앙일보 2010. 4. 1.

9) 위성방송 MBC넷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 2부작 2011. 6. 21.

생사학을 창시한 정신과 의사 퀴블러 로스(기독교 신자)도 인간존재는 육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인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문제의 뿌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의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10)</sup> 그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는 일에 부딪혀 보기로 결정했다.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살핀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육신은 껍질에 불과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은 더 이상 그 껍질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sup>11)</sup> 죽음이 찾아오면 시체가 남는 것이지만, 시체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죽더라도 존재의 양식만 바꿀 뿐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 사실의 문제다.”<sup>12)</sup>

종양학 전문의사 로저 콜은 1984년 퀴블러로스의 워크숍에 참가해 물리적인 육신과 분리되어 지극한 기쁨과 환희, 이 세상 것이 아닌 행복을 느꼈다.<sup>13)</sup>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영적인 존재이며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 이후 호스피스 의사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보살피다가 죽은 티건이란 어린애 영혼의 출현을 통해, 죽음이란 단지 ‘영혼’과 육신의 분리일 뿐이고 우리는 물리적 존재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더 이상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죽음이란 우리 인식의 한계를 반영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는 어느 날 환자가 숨을 거둔 직후 병실에 들어가 시신을 검사하는 동안 몸을 벗어난 영혼의 존재를 생생히 느끼기도 했다. 몸에는 생명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sup>14)</sup>

## C 불교의 경우

불교에서 죽음을 육신이란 옷을 벗는 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최근 입적한 법정스님도 다음같이 말했다.

"죽음이 어느 때 우리를 찾아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우리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육신을 70, 80년 끌고 다니면 부품 교체가 아니라 폐차 처분할 때가 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육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보면 막막하게 되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하게 된다. 우리는 평소에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담담하게 건너갈 것 같다."

10) 퀴블러로스, 강대은 역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 (서울 : BM Books, 2008년) 228쪽

11) 퀴블러로스, 최준식 역 <사후생> (서울 : 대화, 1996년) 54-55쪽

12) 오진탁 <마지막 선물> (서울 : 세종서적, 2007년)

13) 로저 콜, 주혜경 역 <사랑의 사명> (서울 : 판미동, 2011년) 12-13쪽

14) 로저 콜 <사랑의 사명> 74-75, 96쪽

2007년 겨울 폐암으로 미국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후 법정 스님은 '고마움'과 '나눔'을 자주 이야기했다. 수행자답게 생사의 문제에 담담했던 스님은 2009년 다시 병이 재발하자 주위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적하기 며칠 전 병실을 찾은 어떤 문병객이 물었다. "생과 사의 경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스님은 어떠십니까?" 종이에 "원래부터 생과 사가 없어"라고 쓰며 생사를 초월한 모습을 보여줬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 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주면 고맙겠다. 그것은 내가 벗어 버린 헛웃이니까. 물론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이라면 아무데서나 다비(茶毘)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병상에서 스님은 병수발 드는 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 소원은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하루빨리 다비장 장작으로 올라가는 것이야!"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소한 삶을 추구하셨던 스님은 허례허식의 장례절차가 이뤄진다면 죽은 시신이라도 벌떡 일어나 그만두라고 소리칠 테니 내 뜻에 따르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스님의 생전 소원은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단하게 사는 것'이었다. 사는 곳이 번거로워지면 '버리고 떠나기'를 통해 당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 사후 장례절차까지 철저히 당부하셨다. 입적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다.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하여 달라.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 삼일장 하지 말고 지체 없이 화장하라. 평소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고 사리를 찾지 말고 탐, 비도 세우지 말라"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진흙탕 싸움의 현실세계에서 스님은 '비어있으나 충만한'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무소유』 『텅 빈 충만』 등 수많은 스테디셀러를 쓴 스님은 인세 전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소리 없이 나눠주고는 그 일을 깨끗이 잊었다. 남을 도왔다는 생각마저도 놓아버린 스님의 무소유는 말 그대로 '텅 빈 충만'이었다. 소유를 범죄처럼 생각했던 간디에게 깊이 공감한 스님은 관도, 수의도 없이 평소에 입던 가사 그대로 걸치고 좁은 평상에 누운 채로 다비(茶毘)의 불길에 들어갔다. 그 흔한 꽃도, 만장도, 추모사도, 임종계(臨終偈)도, 아무것도 없었다. 스님은 '무소유'를 평생 설했고,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그 길을 쫓았다. 스님이 남긴 무소유, 텅 빈 충만은 신선하고 활기 있는 큰 울림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15)

15) 한국교직원신문 2010년 4월5일 오진탁 칼럼

몇 년 전 입적하신 청화(淸華, 1923년-2003년) 스님도 사람의 눈에 안보이니까 ‘영혼이 어디 있을까’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다면서, 영혼이 우리 중생의 제한된 육안(肉眼)에는 보이지 않아도 천안(天眼), 불안(佛眼), 법안(法眼)으로 본다면 분명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죽어서 떠날 때에 ‘자기 육신이 있다’고 집착하지만, 법당에서 관욕(灌浴)을 할 때 영가(靈駕)가 분명히 몸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을 스님은 직접 느꼈다고 말한다. 16)

“지금 우리 중생들의 눈에는 안보인다 하더라도, 영가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천도법어를 듣고 계십니다.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어서 어떤 때는 모양이 있고 어떤 때는 모양이 없습니다. 인연 따라 과거에 지은 업의 힘으로 인해 한동안 사람의 몸을 받았더라도 인연이 다하면 사람 모양이 사라집니다. 사람 몸이 사라진다 해도 생명 자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천도받는 영가들이시여! 금생에 인연 따라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가 인연이 다해 다시 저승길로 가신 것입니다. 저승길은 어두운 세계입니다. 사람도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는 등불이 없거나 안내인이 없으면 헤매기도 합니다. 죽음의 길도 그와 똑같아서 한번 죽어서 갈 길을 모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몇 십 년 동안 그 몸을 아껴왔으나 죽은 뒤에 몸뚱아리가 화장되면 재가 되고, 땅에 묻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혜가 밝지 못한 중생들은 죽은 뒤에도 평소에 쓰던 육신에 집착하게 됩니다....그러나 영가들이 스시던 마음은 육신과 함께 죽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참다운 생명입니다. 몸은 뜬구름 같고 거품 같이 한동안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나무, 흙 이것저것 다 모아서 집을 짓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이 파괴되면 집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신도 지수화풍 4가지 요소가 모여 형상을 이루었다가 인연이 다하면 몸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17)

---

16) 청화스님 <영가천도법어> (서울 : 광륜출판사, 2009년) 138쪽

17) 청화스님 <영가천도법어>8-13, 32쪽

## D 최면치료를 통한 임종장면

그러면 죽음의 순간을 최면치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면치료 과정에서 임종의 순간을 회상하게 할 경우, 내담자는 죽은 이후 육체로부터 영혼이 빠져나와 허공에 떠다닌다고 증언한다. 죽음 이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내담자를 최면치료를 했더니 다음같은 결과가 나왔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유사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 사례 1

의사 : 죽음의 순간을 말해 주세요.

환자 : 나는 육체를 떠나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체가 보입니다. 위쪽에서 내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의사 :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자 : 잠깐 근처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하늘로 올라가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매우 안심되었습니다. 다른 세계로 가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새파란 빛이 넘치는 세계, 지구와 닮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sup>18)</sup>

### 사례 2

의사 : 어디에 있습니까?

환자 :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의사 :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자 : 예, 생명이 몸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고통스러워 못견디겠습니다.

의사 :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자 : 죽었습니다.

의사 :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환자 : 숨쉬는 것을 그만두고 육체에서 떠났습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대단히 가볍고 자유스럽습니다. 고통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호흡이 편하게 되었습니다.....실제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런 느낌입니다.....방 전체가 밝은 빛에 차 있습니다. 부드럽고 반짝이는 빛, 하지만 이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사 :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자 : 바로 위에서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의사 : 자신이 매장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자 : 물론입니다.....

의사 : 죽은 장소에 언제까지나 머물고 있었습니까?

환자 : 아니요. 따로 갈 곳이 있었어요. 그 장소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기도 했고.<sup>19)</sup>

18) 이이다 후미히코, 김종문역 (자유문학사, 2005년) <사는 보람의 창조> 143쪽

19) 이이다 후미히코 <사는 보람의 창조> 144-146쪽

두 가지 인용사례는 죽음의 순간 생명 혹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sup>20)</sup> 이런 과정은 임사체험자의 증언과 일치한다. 임사체험자는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 자기의 육신을 허공에서 내려다본다. 이들의 의식은 분명하고 생생하게 깨어 있다. 자기가 죽었다는 의사의 판정을 직접 듣기도 한다. 체험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단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임을 경험한다.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아무런 고통도 없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임사체험자는 자신의 육신과 함께 주위 환경을 볼 수 있다.<sup>21)</sup> 또한 이런 증언은 오래전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최면치료 전문가 김영우(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1980년대 이후 죽음이 임박해 다시 살아난 임사체험자, 유체이탈 체험자. 임사체험자, 최면치료자 등 일관적으로 똑같은 결론을 말한다. 지금 발전하는 과학과 의학 자료는 죽음 순간 넘어가도 영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자료가 모여지고 있다. 영혼이 있어서 죽어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 물리적, 육체적 멈춤이 종말인지 하는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의식을 가지고 다른 세계로 이행의 과정에 있다. 자살하면 그런 결정에 대해 후회를 하고, 이후에 고통을 당하는 체험 사례가 상당히 축적되어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과학적 수식, 논증이 아니라 정황증거로서 사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정황 증거가 죽음준비교육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사람

20)1950년대 말 차길진 법사는 15살 때 우연히 참석한 시위현장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현상을 목격했다. 시위대의 박수를 받으며 소방차 위에서 '타도! 이승만 정권!' 을 외치던 학교 선배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이더니 바로 옆을 지나던 고압선에 감전, 그대로 떨어져 죽고 만 것이다. '악' 하는 비명소리도 잠깐, 차법사는 죽은 선배의 몸에서 그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해 너무 놀라 뒷걸음질치고 말았다.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남자 주인공이 죽는 순간, 육체로부터 영혼이 빠져 나왔듯이 그 선배 역시 그런 모습이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선배의 영혼이 보일 리 없었지만, 오직 차법사만이 그이 영혼을 목격할 수 있었다.

차길진 <영혼을 팔아먹는 남자 이야기> 29쪽

21)임사체험(臨死體驗)은 한마디로 임상적으로 죽음 판정을 받았다가, 얼마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되살아나 그 기간 동안 겪은 경험을 말한다. 임사체험 연구는 서양에서 3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에 수천만 건에 이르는 다양한 체험 사례가 수집되었고 국제임사체험학회까지 결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1975년 미국의 레이몬드 무디 교수가 『삶 이후의 삶 Life After Life』을 출간한 이후 많은 전문가가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사체험자들의 체험담을 통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렵듯이나마 희미한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정도 그리 믿을 게 못 된다는 주장이 임사체험자들의 증언 이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이 설득력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공통점들이 많고, 하나같이 임사체험 이후에 현재의 삶을 한층 소중히 여기며 이전과는 다르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에 전념하는 등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취제가 몸에 닿고 이어서 공중을 떠돌다가 침대 위에서 나의 시신을 내려다보면서 내 몸에서 빠져나온 나 자신을 발견한 기억이 있다. 나는 단지 머리와 눈만 있었던 것으로 의식되고 몸을 가졌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나는 저 공간 위에 떠 있는 듯했고 단지 내 마음만 움직였다. 몸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 내 머리 같은 것만 공간에 떠 있었다. 나는 오직 마음뿐이었다. 아무런 중력도 느끼지 않았고 아무것도 지닌 게 없었다." 오진탁 <마지막 선물> 124-125쪽

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측면만 받아들이거나, 자기에게 부담없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자기 얼굴처럼 부담없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신뢰할만한 과학적의 증거가 상당히 많다. 열린 눈으로 보면 자료는 많다. 자기 편견으로 보니까, 무엇을 보여주어도 거부하게 된다. 최근 입적한 범정스님은 죽음이란 육신의 옷을 벗는다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과학이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턱에 있다. 20세기 초부터 형성된 양자역학은 존재의 연속성이나 연결성, 개인과 전체의 관계, 개인과 우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양자역학의 연구결과와 특이한 최면치료의 임상결과는 매치가 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수행자에게는 죽음은 비참함, 피해야할 적이 아니라 자기 발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최면치료 통해 의식이 확장된 환자는 죽음,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직접 죽음을 체험한 임사체험자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라진다." 22)

---

22) 위성방송 MBC넷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 2부작 2011. 6. 21.